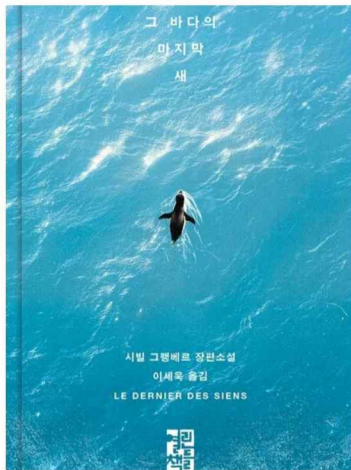


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6월의 책



초·중·고
교과서



그 바다의 마지막 새

시빌 그랑베르 글

초·중·고
교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원 전쟁 이야기

안민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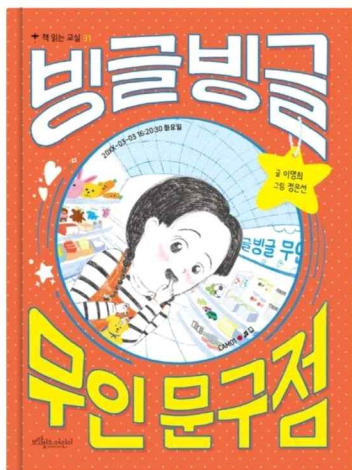
초·중·고
교과서



맛집에서 만난
경제 수업

남원상 지음

초·중·고
교과서



빙글빙글 무인 문구점

이명희 글, 정은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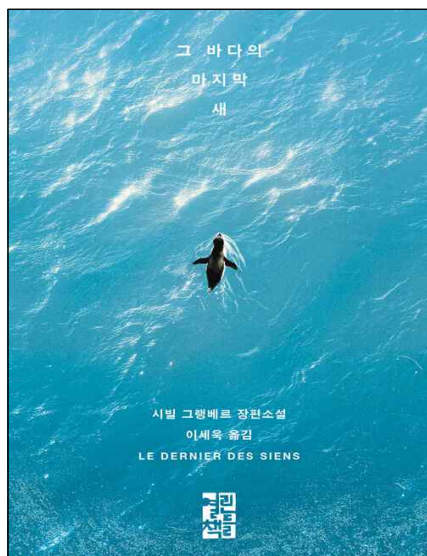
초·중·고
교과서



여기 그리고 저기

바루 글·그림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바다의 마지막 새

시빌 그랭베르 지음

열린책들 / 2025 / 271쪽

생명력이 작용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으며,
생명은 언제나 다시 형성된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싶었다.

책 속 구절, 169쪽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하나, 그 곁을 지키는 마음

매머드, 도도, 여행비둘기... 지구에서 사라진 생물종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위기에 처한 종 하나가 사라지는 중이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일인 양 느껴진다. 그렇다면 멸종의 순간을, 그 마지막 생명체를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 노련한 소설가가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마지막 큰바다쇠오리와 인간의 교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마주해 보자.

생물학자 오귀스트는 아이슬란드 인근 섬에서 한 마리의 바닷새를 구하게 된다. 펭귄을 닮은 특이한 외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탓에 고기와 깃털, 부리, 알 조각까지도 고가에 거래되면서 마구잡이로 사냥당하게 된 종이었다. 박물관에 새를 보내기 전까지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지만, 둘의 동거는 여러 문제로 순탄하지 않다.

학문적 의도에서 시작된 관찰은 제 터전을 벗어난 존재의 어색한 몸짓과 비릿한 냄새에서 생명을 실감하고, 그 감정을 읽어내는 지경까지 이른다. 인간과 새. 너무나 다른 두 존재는 서로에게 차츰 스며든다. 일확천금을 위해 새를 노리는 사람의 습격을 함께 극복하고, '프로스프'라는 이름을 붙여 동반자로 받아들인다. 그가 속한 종다운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동족을 만나게 해 주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큰바다쇠오리는 1844년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자기가 속한 종의 감각을 알고 언어를 알고 본능을 아는 마지막 존재'와 그 곁을 지켜보는 이의 운명이 마음을 울린다. 멸종은 또 다른 멸종을 부른다. 촘촘하게 엮힌 생명의 그물망에 속하는 존재들의 숙명이다.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 불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원 전쟁 이야기

안민호 지음

주니어태학 / 2025 / 199쪽

왜 우리는 서로 죽여야 하는 걸까?

저들이 말하는 그 반짝이는 돌멩이가 대체 뭐길래...

책 속 구절, 33쪽

자원으로 읽는 입체적인 세계사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세계 유가가 치솟았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줄이며 에너지를 무기처럼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전쟁 이면에는 자원에 대한 세계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때로는 자원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원은 어떻게 전쟁의 씨앗이 될까?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양도 한정되어 있어 국가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풍부한 자원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패와 침략을 불러오는 ‘자원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는 침략과 내전에 시달렸다. 특히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착취하려는 반군 때문에 팔이 잘린 주민들이 1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대출해 주며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세우고 있다. 게다가 동남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 상류에 무분별하게 댐을 개발하여 하류 국가 주민의 생계를 위협한다. 그 배경에는 세일이라는 또 다른 자원을 채굴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아메리카의 식량자원, 극지방 얼음 아래 자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원으로 읽는 입체적인 세계사가 이어진다.

이 책은 하나의 자원이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환경, 주민들의 생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세계의 흐름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지도와 사진을 함께 제시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유한한 자원 때문에 우주 개척까지 나서게 된 이 시점,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구조를 읽고 이해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답을 함께 찾아볼 때다.



맛집에서 만난 경제 수업

남원상 지음

서해문집 / 2025 / 144쪽

맛집에서 사 먹는 음식 한 그릇에도
다양한 경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책 속 구절,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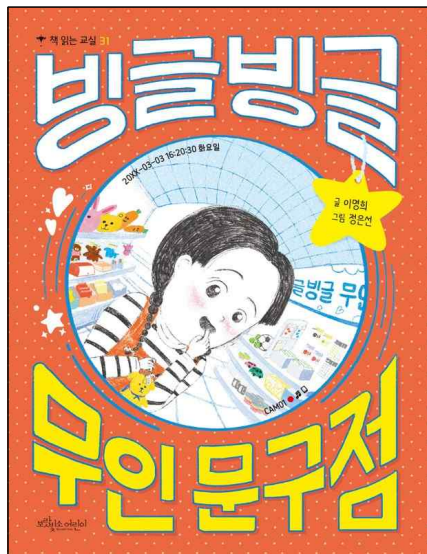
머리 아픈 경제 이야기도 쓱 차려서 꿀꺽 먹으면 끝!

매콤달콤 떡볶이, 반반매력 짬짜면, 바삭바삭 치킨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있다.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로운 이야기와 친근한 예시로 경제를 풀어낸다. 사회 시간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대체재와 보완재,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려운 개념도 생생한 이야기로 한층 맛있게 접해보자.

먼저 길거리 대표 간식인 떡볶이를 통해 시장의 종류와 재화, 서비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중식당에 짬짜면이 없어서 한정된 돈으로 짬뽕과 짜장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기회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을 일상에서 체감한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K-치킨 탄생에 얽힌 우리 경제의 아픈 역사도 들여다본다. 화려한 인기 속에는 국가부도 위기와 실업 시대를 버텨낸 서민들의 삶이 담겨있다.

시선을 넓혀 해외 사례까지 훑어본다. 일본에서 쌀값 폭등으로 40년 전통의 카레 가게가 문을 닫게 된 사연은 쌀이 주식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고로 다가온다.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가격이 올라 빵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음식과 경제가 국경을 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는 이미 우리의 식탁 위에 있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만화와 그래프는 내용을 쉽게 와닿게 하고 읽는 재미까지 더한다. 푸짐한 식탁에 같이 앉아 일곱 가지 익숙한 먹거리를 맛보며 경제의 기본 개념을 하나씩 발견해 보자! 이 맛있는 여행을 함께하다 보면 메뉴를 고르거나 가격을 볼 때 저절로 경제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빙글빙글 무인 문구점

이명희 글, 정은선 그림

보랏빛소어린이 / 2026 / 104쪽

다행이야! 아직 내 마음이 삼각형이어서.

책 속 구절, 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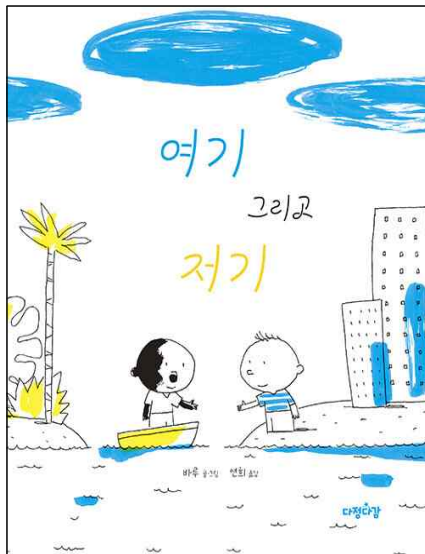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삼각형 양심이 빙글빙글 돌며 마음을 찢러요

이사를 자주 다녀 친구가 많지 않은 다운이는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진이와의 우정마저 흔들릴까 불안하다. 그러던 중 새로 생긴 무인 문구점에서 아기자기한 물건들 사이에 마지막 하나 남은 피규어를 고른다. 하지만 고장 난 키오스크는 돈을 계속 밀어내고, 피아노학원 시간은 점점 다가온다. 망설이던 끝에 결국 다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만다.

원래는 살 생각도 없던 토끼 인형 킬링까지 손에 쥐게 되고, 얼떨결에 수진이에게 선물해 버린다. 뒤통게라도 값을 치르려 하지만 여전히 고장 난 키오스크. 누군가 자신이 한 짓을 눈치챌까 봐 마음은 점점 더 조마조마해지고, 두려움은 자꾸만 커져 간다. 결국 다운이는 같은 반 친구 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끌려다니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자신도 모르게 날 선 말들을 하기에 이른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양심은 삼각형이라 잘못을 하면 뾰족한 모서리가 마음을 찢르지만 반복할수록 모서리가 닳아 차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인디언 설화를 들려주신다. 마음속 가시를 건디지 못한 다운이는 결국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고, 스스로 바로 잡기로 결심한다. 문구점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끄러운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편지를 들고 수진이에게 달려간다. 마음이 솜사탕처럼 가볍고 달콤하다.

무인 가게 앞을 지나치려다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혹시 누가 그냥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서다. 이 책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담은 이야기이다. 다운이의 용기를 응원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아직 뾰족한 삼각형이 있기를 가만히 소망해 본다.



여기 그리고 저기

바루 글·그림

다정다감 / 2025 / 40쪽

여기서 우리는 저기가 살기 좋고,
삶이 더 달콤할 거라고 말해요.

책 속 구절, 6쪽

‘저기’ 만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

책장을 넘기면 나란히 그려진 두 아이가 보인다. 비슷한 키의 호기심 많은 또래 친구지만 사는 곳은 바다 건너편이다. ‘여기’에 밤이 찾아와 별이 가득 찰 때, ‘저기’는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노래를 시작한다. 노란 세상과 파란 세상에 사는 아이는 서로 가본 적 없는 곳의 삶을 상상한다. 그곳은 더 살기 좋고 걱정도 없을 것만 같다. 정말 그럴까?

두 아이는 모두 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그 풍경은 사뭇 다르다. 한 아이는 학교에 가려면 한 시간씩 걸어야 한다. 힘들게 도착해도 오래된 교과서뿐 제대로 된 책상은 커녕 필기도구조차 없다. 반대편의 아이는 아빠가 차로 학교에 데려다준다. 노트와 펜은 물론이고 필통과 지우개는 하나 더 갖고 있다. 갑자기 잃어버려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다.

여기에는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국경을 몰래 넘어야 한다. 반면 저기에 있는 아이는 들뜬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며 친구들에게 들려줄 추억을 만든다. 어느덧 두 아이는 자기 앞의 바다를 마주한다. 그곳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비까지 쏟아진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아이는 두려움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엄마에게 매달리고, 다른 아이는 여행을 마친 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한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는 저편의 아이에게는 간절히 달고 싶은 희망이다. 작가는 2021년 영국 해협을 건너다 숨진 난민 가족의 소식을 접하고 이 책을 썼다. 난민 문제는 어느 먼 곳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세상의 모든 ‘여기’와 ‘저기’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해본다.